

광주시 유아숲체험장·희망장난감도서관

아이들 자연·놀이 체험, 도심서도 충분해요



광주시청 1층 시민 숲에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

〈광주시 제공〉

유아숲체험장 문 활짝 지도사와 함께 현장수업

도심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는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직공원과 시민의 숲(어린이교통공원 주변) 내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장은 어린이들이 계절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등 자연 속에서 놀 거리를 찾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숲체험장은 흙놀이, 밭줄·나무를 활용한 놀이 등 체험 공간, 숲 동·식물을 관찰하는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숲속 자연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숲 활동은 유아들에게 면역력 증진과 운동감각을 높여주고 비만을 예방해 건강

한 성장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 배려심과 집중력이 향상돼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평형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유아숲체험원이 녹색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숲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중(월~목)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격주, 주1회, 주2회 등으로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금요일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험장마다 유아숲지도사 1명을 배치해 숲 체험 수업이 낯선 교사들과 아이들의 숲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유아숲체험장 정기 이용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gwangj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청 1층 희망장난감도서관 이달부터 토요일도 이용 가능

광주시청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직장맘’을 위해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도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

시청 1층 시민숲에 있는 이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청사 내 설치됐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성공모델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7월 문을 연 후 장난감 대여, 놀이방, 프로그램 참여 등 이용 인원이 1만4000여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1개당 평균 5만 원 가량의 장난감 대여가 4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자유놀이방(무료) 이용객까지 감안하면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가 희망장난감도서관을 개장한 것을 계기로 광주에서 장난감도서관은 9곳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난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맡고 있다. 7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연회비는 3만원, 특정 프로그램 참가비는 별도. 문의 희망장난감도서관 062-613-555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초질서 위반 제보 ‘클린밴드’ 모니터단 22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빛고를 광주 정결 지킴이 ‘클린밴드’ 모니터단 250명을 9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클린밴드’는 기초질서지킴이를 생활화하고 무질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인 ‘밴드’를 활용해 구축하는 시민참여형 기초질서지킴이 시스템이다. 모니터단이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행

수막 등 무질서 현장을 촬영해 밴드에 제보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후 시정 조치하게 된다.

클린밴드 제보 대상은 ▲쓰레기 불법투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주정차 등 교통질서 ▲거리가게(노점상)·노상적치물 ▲공중화장실 ▲음식·숙박업소 위생·친절 ▲교통중상자 친절 등 기초질서 7대

분야다.

모니터단 참여는 자격조건이 없으며 기초질서지킴이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학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전자우편)이나 팩스, 우편 또는 시청 자치행정과와 구성 기초질서 담당부서를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이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허기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하계U대회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기초질서지킴이에 앞장서 대회 성공에 큰 주춧돌이 됐다”면서 “정결·질서·친절 생활화를 위한 클린밴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도료 많이 나오면... 무료 검사 받으세요

누수 요금 50% 지원도

광주시는 건물 안에 있는 배관 등 옥내 급수시설 점검과 누수(漏水) 무료 탐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옥내누수 무료 탐사 서비스’는 주택 내부에 있는 급수관 파손 등으로 생기는 누수를 발견하지 못해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수도관 누수 여부는 옥내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잡고 수도 미터기의 별 표시를 확인했을 때 미터기가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전월 대비 수도 사

용료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상수도본부 5개 지역사업소에 옥내 누수 탐사를 신청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시는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후 1611건의 무료 누수탐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누수지점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고 있다.

한편, 옥내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수도 설비업체에 의뢰해 수선한 후 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 등 누수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지역사업소에 제출하면 누수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고을 식품안전 감시단’ 활동 첫발

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감시하는 빛고을식품안전감시단원 28명에게 최근 위촉장을 수여하고 단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빛고을식품안전감시단은 식품위생공무원과 함께 이달부터 2년간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불량식품 차단 및 홍보·계도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 ▲지역 사회 부정불량식품 모니터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빛고를 식품안전감시단을 구성, 운영해 식품위생행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파트너십으로 효율적인 식품안전 감시를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에 류한호 교수

광주시는 지난 7일 제2기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지난 2013년 12월 발족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가 구성, 운영하는 협의체다.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와 4개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6년 추진계획과 전국 지방분권 동향을 보고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 시민참여 확대, 분권관련 쟁점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상반기에 수립할 3개년 계획에 반영, 시책화하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리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